

## 위기의 글로벌 시대,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흥성

### ▣ 흥성사료(주) 정태원 회장



보다 훌륭하게 치러진 지난 7월 1일 한국사료협회 창립기념식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협회가 있기 까지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협회가 창립되던 지난 60년대 초는 우리나라 축산·사료산업 기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올 7월 3일로 50주년을 맞은 한국사료협회 창립기념일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창립기념식을 외부 용역 없이 직접 준비한 조남조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말문을 열기 시작한 정태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이어갔다.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행사

조사료·농후사료를 통틀어 벗짚 이외에는 사료자원이라고는 구경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62년 7,814톤으로 시작한 배합사료생산량이 지금은 첨단장비로 완전 자동화되어 지난해에는 1,753만톤이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이룩하였습니다.”라고 사료산업의 지난 50년을 회고했다.

흥성사료(주) 정태원 회장(73세)은 우리나라 사료산업 50년 역사를 함께한 산 증인이다.

서울이 고향인 그는 덕수상고를 나와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67년 1월에 일찌감치 흥성사료공사를 창업한 사업가 기질을 타고난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현재 사료업계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오너중에서는 정 회장이 최고 원로로 꼽힌다.

정회장은 1970년 흥성사료공업(주) 대표이사 취임, 1979년부터 6년간(14, 15, 16대) 한국사료협회장, 대한양계협회 회장, 덕수상고 총동창회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특히 사료협회장 재임시절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추진력, 친화력으로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해결함으로써 사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다음은 정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Q. 최고 경영자로서 경영 이념은?

A. 일반적으로 기업은 매순간 변화무쌍한 단기적인 시장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유효적절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경쟁력의 차이를 만드는 힘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기업 문화를 세우고 발전 시켜가는 ‘인성경영’이야말로 지난 흥성의 반세기 자취를 돌이켜 볼 때 여러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재의 사료업계의 선도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화와 산업외적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고 가속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흥성은 1967년 창업 이래 ‘창의·성실·인화’를 사훈으로 회사나 고객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을 나누는 ‘더 큰 미래’를 위하여 전 임직원은 고객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소중함으로, 공통된 목표 아래 포용과 나눔으로, 정확한 정보 기술의 수집과 효과적 타이밍의 전개로, 다양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원천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Q. 업계 최고 원로로서 지난 사료산업 50년 회고와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료산업은 질적·양적으로 그 경제적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식량공급의 근간을 넘어 국민 건강에 중요한 필수적인 산업으로서 오늘날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종농업이 주축이었고 먹거리 해결이 우선이던 지난 60년대를 돌이켜 보면 지금의 사료산업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결과로 감회가 새로울 뿐입니다.

지난 시기 IMF, 글로벌 금융위기, 구제역, AI 등 어려움을 잊지 말고, 특히 FTA 체결에 따른 선진국과의 경쟁, 국제곡물가의 고공행진, 환율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향후 50년, 100년을 준비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한국사료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정태원 회장을 대신해 정규원 사장(右)이 본회 조남조 회장으로 부터 유공자 공로패를 받고 있다.

**Q. 협회장 재임기간 동안의 업적 및 기억에 남는 일은?**

A. 본인이 사료협회장으로서 재임한 1979년부터 1984년까지는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성장기라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유치단체를 거쳐 제도적 기반형성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여 1977년 배합사료 생산량은 연간 약 190만톤에서 1984년에는 약 599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근대적인 제조시설을 갖추고 괄목할만한 산업성장을 일군 시기입니다.

그러나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원료의 가격 폭등에 따른 산업기반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G.S.M. 자금 도입 등에 힘썼으며, 사료공장의 대도시 집중화와 공해방지 대책 그리고 판매 수송의 원거리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차원의 지구책 마련으로 80년대 사료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적 성장외에 질적 성장을 위해 협회 내에 사료기술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전국순회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축산기술과 사료제조기술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Q. 전환기 축산 및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A. 지금의 축산업은 단순히 농업의 중추적 대표 산업일 뿐만 아니라 산업적 규모와 경제적 위상 등 그 중요성을 일일히 거론할 필요는 없겠으나 거시적으로 식량안보 차원과 세계 경쟁 구도 하에서 제도적인 부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모색과 자구적 노력에 힘써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과 AI에 따른 산업적 피해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의 방역의식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에서 소비 단계까지의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고, 친환경 유기축산물 생산 등 인류복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으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끊임없이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Q. 앞으로 흥성사료를 이끌어 나아가실 계획은?**

A. 흥성은 창업 이래 우리나라 축산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과 산학협동 사업을 진행하고 꾸준한 R&D 투자로 양축농가 수익증대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최종 산물인 축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 등 실질적이고 필요한 결과를 산업현장에서 구현해왔습니다.



▲ 백암산 등반 사진

‘Feed is Food’라는 슬로건 아래 전사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부심과 긍지로 또한, 사람의 면역기능 개선을 위한 각종 축산물 제조 특히 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흥성이 아니라 직접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최종산물의 유통과 소비자의 니즈를 함께하는 생산 및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회사의 모토가 배합사료임을 잊지 않고 양질의 사료생산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사료업계가 당면한 국제곡물가의 지속적 상승과 폭등하는 환율 등 제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네덜란드 ‘스콧호스트사료연구소(SFR)’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과의 생산원가 경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

율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명분이 성과를 보장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책을 잘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Q. 구제역 종식 이후 농가 재건을 위한 서비스 활동은?**

**A. 회사와 농장간의 방역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일일단위로 사료 유통경로**

별 방역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한편 기존의 대양축가 방역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장약제 지원 및 소독효과 분석 그리고 교육 등 실질적인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돈 입식과 산란용 병아리 입추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을 포함한 국내·외 구입연계 및 인허가 등 제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회장님의 좌우명과 생활신조는?**

**A.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正道경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자는 人和경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항상 정도를 걸으며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애써왔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글·사진 : 권영길 차장) 